

1988년 기업경영분석 (개요)

—한국은행—

I. 개황

1988년중 우리나라 기업은 올림픽 特需 및 내수확대에도 불구하고 원貨질상의 가속화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로 매출액신장세는 전년에 비하여 鈍化되었으나, 外換差益, 금융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크게 증가함에 힘입어 수익성은 전년보다 호전되었다. 아울러 연중 활발히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생산성도 수익성 호조 및 설비자산의 효율성 향상 등을 반영하여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영규모면에서 보면, 연중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5.8%로 전년의 22.6%에 비해 낮아졌으며,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어업, 광업, 도소매, 숙박업 등의 매출액신장세가 둔화된 반면, 전기·가스 및 蒸氣業, 건설업, 운송·창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제조업중에서는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신장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수익성면에서는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인 4.1%를 나타냈는데, 이는 매출액신장세의 둔화에 따른 영업수익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외환차익과 금융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제조업이외의 산업에서는 어업, 광업,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보다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제조업중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어 수출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익성 격차는 전년보다 확대되었다.

재무구조를 보면, 수익성 향상과 활발한 증자에 힘입어 기업의 장기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제조업의 경우 25.3%로 전년보다 높아졌으며,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높아져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제조업중에서는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면에서는 수익성 호조 및 설비자산의 효율성 향상등을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이 21.1%로 나타나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제조업이외의 산업에 있어서도 어업 및 도소매·숙박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중에서는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전년에 비하여 다소 둔화된 반면 내수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높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II. 경영규모

연중 기업의 경영규모 신장상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올림픽 特需 및 내수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貨질상의 가속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른 수출신장세의 둔화로 매출액증가율이 전년의 22.6%에서 15.8%로 낮아졌다. 총자산증가율도 15.8%로 전년

(20.4%) 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나,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은 활발하였던 시설투자에 힘입어 18.3%를 기록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업종별로 경영규모의 신장상황을 보면 급격한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조립금속·기계업종의 매출액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내수비중이 높은 제재·가구, 종이·인쇄,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업종 등은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원화절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섬유·의복업종은 매출액증가율이 전년의 22.3%에서 9.6%로 크게 둔화된 반면, 제재·가구업은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호조와 건설경기의 호조에 따른 내수확대로 매출액증가율이 30.6%로 전년에 이어 높은 매출액 신장세를 보였다.

한편 연중 업종별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제재·가구업종이 국내외수요 증가로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이 28.9%로 높아져 제조업중 가장 높은 시설투자 증가를 보였으며 기초원료의 공급부족 현상을 보였던 石油·化學업종도 시설투자가 활발하여 전년에 이어 26.8%의 높은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종이·인쇄업

〈表-1〉 제조업 업종별 경영규모 신장률

(단위: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제조업	22.6	15.8	20.4	15.8	18.4	18.3
飲·食料品	13.8	13.5	14.2	12.9	12.2	17.8
섬유·의복	22.3	9.6	20.6	17.6	27.3	21.7
제재·가구	24.2	30.6	13.3	30.2	19.6	28.9
종이·인쇄	19.2	19.0	13.2	19.7	10.1	23.2
石油·화학	11.6	9.7	20.0	19.7	27.2	26.8
비금속광물	12.7	19.4	12.3	15.6	6.8	10.2
제1차금속	21.7	19.4	14.3	15.9	10.5	17.1
조립금속·기계	32.9	20.8	26.0	13.4	20.1	14.8
수출기업	27.6	16.0	22.3	14.0	18.8	16.4
내수기업	18.8	15.7	19.0	17.2	18.1	20.1
重化學工業	24.3	17.7	21.6	15.0	17.9	16.9
輕工業	19.9	12.9	18.3	17.4	19.7	21.5
대기업	21.7	16.4	20.5	15.3	18.4	18.3
중소기업	25.2	14.1	20.4	18.2	18.6	18.1

종도 신문, 잡지등의 창간에 따른 제지업계의 수요 급증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이 23.2%나 증가하였다.

제조업 부문을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수출기업의 경영규모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매출액증가율이 전년의 27.6%에서 16.0%로 크게 떨어졌으며, 유형고정자산증가율도 16.4%로 전년(18.8%) 보다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내수기업은 올림픽 特需 및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여 매출액증가율이 15.7%를 기록, 수출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시설투자도 활발하여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이 20.1%로 수출기업(16.4%)을 상회하였다.

〈表-2〉 산업별 경영규모 신장률

(단위: %)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어업	15.8	8.1	9.2	26.0	3.9	29.0
광업	8.8	4.8	8.5	9.5	7.9	5.7
제조업	22.6	15.8	20.4	15.8	18.4	18.3
전기·가스 및 증기업	9.7	11.3	0.3	0.6	2.8	1.0
건설업	-2.9	16.2	5.3	8.2	8.1	15.2
도소매·숙박업	17.5	12.9	11.8	16.1	14.9	31.0
운수·광고업	11.4	12.9	11.4	6.9	9.1	7.5
부동산·사업서비스업	21.2	25.8	15.3	13.6	11.4	8.4
오락 및 문화예술회서비스업	16.1	17.3	19.7	12.1	11.0	7.4

제조업, 어업, 광업, 도소매·숙박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매출액신장이 전년수준을 상회하였다. 특히 건설업은 건축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의 2.9% 감소에서 16.2% 증가로 반전되었다. 시설투자의 증가는 어업이 원양업체들의 수산물가공업 등 신규사업 진출로 29.0%의 높은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을 보였으며 도소매·숙박업 또한 올림픽 경기 및 소비증가에 따른 경영여건의 호조를 반영하여 유형고정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광업과 전기·가스 및 증기업의 시설투자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Ⅲ.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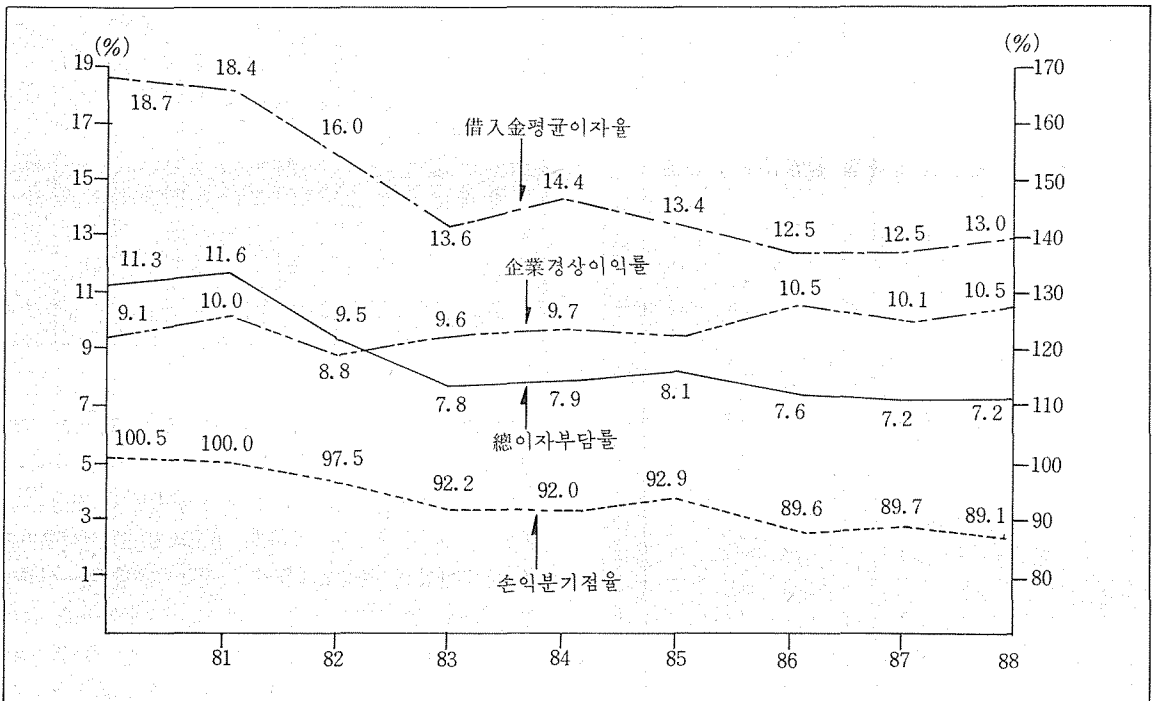
1. 수익성 추이

연중 기업의 수익성 추이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8%로 전년(7.2%) 보다 낮아짐으로써 86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매출액경상수익율은 4.1%로 전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화切上, 임금인상 등의 수익감소요인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원화절상에 따른 외환차익의 증가 및 금융수익의 증가 등으로 영업외수익이 대폭 증가하여 경상이익이 크게 호전된 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영업외비용중 가장 비중이 큰 금융비용의 매출액대비 비중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 등 저금리 정책금융의 축소로 전년 수준인 4.6%를 유지하였다.

〈表 - 3〉 제조업 원가구성비 추이
(매출액=100)

	(단위 : %)				
	1984	1985	1986	1987	1988
매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출원가	83.9	83.4	83.3	83.9	83.9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8	8.8	8.7	8.9	9.3
영업이익	7.4	7.8	7.9	7.2	6.8
영업외수익 (외환차익)	2.0	2.3	2.2	2.7	3.6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6.8	7.6	6.6	6.3	6.4
(외환차손)	0.5	1.0	0.5	0.4	0.4
경상이익	2.7	2.5	3.6	3.6	4.1

〈그림 - 1〉 수익성 관련지표 추이



註 : 차입금평균이자율 = (금융비용 / 이자대부채) × 100
 기업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 금융비용) / 총자산} × 100
 총이자부담률 = (금융비용 / 타인자본) × 100
 손익분기점율 =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 매출액) × 100

여타 수익성관련지표의 추이를 보면 손익분기점율은 89.1%로 전년(89.7%)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기업경상 이익률은 10.5%로 타인자본조달코스트인 총이자부담률(7.2%)을 상회하고 있으나, 차입금평균이자율 13.0% 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다.

〈表 - 4〉 제조업 업종별 수익성

(단위 : %)

	매 출 액 경상이익률		매 출 액 영업이익률		총 자 본 경상이익률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제 조 업	3.6	4.1	7.2	6.8	4.4	4.9
飲 · 食 料 品	2.6	2.0	6.3	5.0	3.6	2.7
섬 유 · 의 복	4.8	3.8	7.4	5.7	7.8	5.6
제 제 · 가 구	3.6	4.0	6.4	6.8	5.1	6.1
종 이 · 인 쇄	3.1	5.0	7.3	8.1	3.7	6.0
石 油 · 화 학	4.9	5.9	7.5	8.1	6.6	7.5
비 금 속 광 물	5.5	7.8	10.6	11.6	4.9	7.5
제 1 차 금 속	4.1	8.7	10.3	11.8	3.9	8.7
조 립 금 속 · 기 계	2.3	2.0	6.2	5.3	2.6	2.3
수 출 기 업	3.8	4.1	7.3	6.6	4.8	5.1
내 수 기 업	3.4	4.0	7.2	7.0	4.2	4.8
重 化 學 工 業	3.2	4.2	7.1	7.0	3.6	4.7
輕 工 業	4.2	3.8	7.5	6.5	6.1	5.3
대 기 업	3.7	4.3	7.7	7.2	4.2	4.9
중 소 기 업	3.3	3.2	6.0	5.7	5.8	5.2

제조업 업종별로 보면 원화절상, 노사분규 등으로 수출 및 생산에 크게 영향을 받은 섬유·의복업, 조립금속·기계업종과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飲·食料品業種의 수익성이 전년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업종은 원화절상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호황에 힘입어 수익성이 전년도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차금속업종은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외환차익의 증대에 힘입어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전년의 4.1%에서 8.7%로 크게 높아졌다.

제조업을 내수, 수출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연중 15.8%에 달한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내수기업의 수익성이 수출기업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출액영

〈表 - 5〉 산업별 수익성

(단위 : %)

	매 출 액 경상이익률		매 출 액 영업이익률		총 자 본 경상이익률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어 업	6.8	4.3	10.0	6.2	7.3	3.9
광 업	2.7	2.1	2.5	0.6	2.1	1.5
제 조 업	3.6	4.1	7.2	6.8	4.4	4.9
전기·가스 및 증기업	18.8	26.5	38.6	32.1	6.0	9.4
건 설 업	-1.4	-0.5	5.8	5.2	-1.0	-0.5
도 소 매 · 숙 박 업	1.3	1.6	2.2	2.2	3.7	4.4
운 수 · 창 고 업	2.1	3.8	7.6	7.0	1.8	3.4
부동산·사업서비스업	8.7	10.6	11.7	11.3	5.8	8.7
오 락 및 문화예술회사서비스업	10.3	6.5	9.9	7.0	9.1	4.8

업이익률의 경우 내수기업이 7.0%로 수출기업(6.6%)을 상회하였으며 매출액경상이익률도 내수기업이 4.0%로 수출기업(4.1%)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의 감소로 매출액경상이익률이 3.2%를 기록, 전년 수준(3.3%)인 반면 대기업은 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수익의 대폭 증가로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전년(3.7%) 보다 크게 높아진 4.3%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이외의 산업을 보면 매출액영업수익률은 인건비 상승 및 원화절상 등으로 전 산업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소매·숙박업만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가스 및 증기업의 경우 전력요금 인하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2.1%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광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6%로 전년(2.5%) 보다 크게 낮아졌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외환차익이 크게 증가한 전기·가스 및 증기업이 전년의 18.8%에서 26.5%로 높아졌으며 운송·창고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도 호조를 보였다. 건설업은 매출액경상이익률이 -0.5%로 적자폭은 전년(-1.4%)보다 줄어들었으나, 해외건설의 부진과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 등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경영을 면치 못했다.

2. 수익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기업(제조업)의 수익성을 美國, 日本, 臺灣과 비교해 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상영업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준이나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가감한 경상이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88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8%로 臺灣의 10.7%(87년), 美國의 7.3%(88년) 보다는 다소 낮으나 日本의 4.1%(87년)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매출액경상이익률은 4.1%로 日本의 3.7%(87년)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美國의 8.3%(88년), 臺灣의 13.6%(87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높은 타인자본의존도에 따른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상이익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액에 대한 금융비용비율은 4.6%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日本의 1.8%(87년), 臺灣의 1.8%(87년)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表 - 6〉 제조업 수익성의 국제비교

(단위 : %)

	韓國		美國	日本	臺灣
	1987	1988	1988	1987	1987
매출액영업이익률	7.2	6.8	7.3	4.1	10.7
매출액경상이익률	3.6	4.1	8.3	3.7	13.6
총자본경상이익률	4.4	4.9	9.6	4.5	13.1
금융비용 / 매출액	4.6	4.6	-	1.8	1.8

〈資料〉 日本 大藏省, 재정금융통계월보
 臺灣銀行, 臺灣地區工業財務狀況報告
 U. S. Department of commerce, Quarterly Financial Report

3. 利益剩餘金の 처분

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사외배분인 배당금의 비중이 18.7%로 전년(18.1%)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사내유보의 비중은 전년(81.9%)보다 다소 낮아진 81.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사내유보율을 보면,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계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낮아졌다. 제조업의 순이익중 배당금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배당금의 증가로 전년의 24.8%에서 27.2%로 높아졌으며, 자본금중 배당금 비중을 나타

〈表 - 7〉 제조업 업종별 이익잉여금 처분상황 및 배당지표

(단위 : %)

	사외배분		사내유보		배당성향		배 당 륜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제 ` 조 업	18.1	18.7	81.9	81.3	24.8	27.2	5.3	6.4
飲 · 食 料 品	21.3	23.1	78.7	76.9	27.1	33.4	7.3	7.2
섬 유 · 의 복	8.9	9.9	91.1	90.1	11.1	15.0	5.6	6.0
제 제 · 가 구	6.7	6.9	93.3	93.1	9.5	8.0	1.8	3.1
종 이 · 印 刷	6.3	7.4	93.7	92.6	11.3	12.7	3.2	4.7
石 油 · 화 학	21.7	24.7	78.3	75.3	32.7	39.2	10.0	12.6
비 금 속 광 물	25.1	16.8	74.9	83.2	34.4	21.1	8.8	9.0
제 1 차 금 속	26.3	27.2	73.7	72.8	31.4	30.0	5.7	9.0
조 립 금 속	19.7	18.2	80.3	81.8	26.5	27.0	3.2	3.6

註 : 사내유보 = 이익준비금 + 임의적립금 · 기타 + 이익잉여금
 배당성향 = 배당금 / 당기순이익
 배 당 륜 = 배당금 / 자본금

내는 배당률도 전년의 5.3%에서 6.4%로 높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飲 · 食 料 品을 제외한 전업종의 배당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수익성이 호조를 보인 제제 · 가구, 종이 · 인쇄, 제1차금속업종 등의 배당률이 크게 높아졌다. 제조업 이외의 산업을 보면 광업, 건설업, 부동산 및

〈表 - 8〉 산업별 이익잉여금 처분상황 및 배당지표

(단위 : %)

	사외배분		사내유보		배당성향		배 당 륜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어 업	4.1	5.8	95.9	94.2	7.6	12.2	4.0	4.5
광 업	11.3	7.9	88.7	92.1	15.5	8.0	1.5	1.3
제 조 업	18.1	18.7	81.9	81.3	24.8	27.2	5.3	6.4
전 기 · 가 스 및 증 기 업	7.1	10.2	92.9	89.8	7.3	10.3	1.1	3.0
건 설 업	13.8	11.8	86.2	88.2	18.1	14.3	1.6	2.0
도 소 매 속 박 업	13.4	15.7	86.6	84.3	21.5	25.2	4.2	5.3
운 수 · 창 고 업	9.4	11.3	90.6	88.7	17.2	22.8	3.7	3.8
부 동 산 · 사 업 서 비 스 업	9.7	9.4	90.3	90.6	16.6	13.8	3.2	6.1
오 략 및 문 화 예 술 서 비 스 업	1.7	2.0	98.3	98.0	2.4	2.5	1.2	0.7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사내유보율이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며, 사외배분인 배당금의 비중은 늘어났다. 배당성향은 광업, 건설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이 낮아진 반면 여타 산업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IV. 활동성

기업의 활동성 지표를 보면, 연중 매출액신장세의 둔화를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 총자본회전율이 1.22회로 전년의 1.24회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채권회전율은 7.74회로 전년의 7.34회 보다 높아진 반면, 재고자산회전율은 7.27회로 전년의 7.40회 보다 다소 낮아짐으로써 외상매출금 회전기간은 전년보다 짧아진 반면 상품판매기간은 전년보다 다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회전율을 업종별로 보면 매출액신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제재·가구,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등이 각각 1.53회, 0.96회, 1.00회로 전년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매출액신장세가 둔화된 飲·食料品, 섬유·의

복, 석유·화학 등은 각각 1.36회, 1.49회, 1.26회로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내수·수출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총자본회전율이 각각 1.64회, 1.24회로 대기업과 내수기업(1.12회, 1.20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어업, 광업, 도소매·숙박업,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등의·활동성이 전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 및 증기업, 건설업, 운송·창고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활동성은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10〉 산업별 활동성 지표

(단위: 회)

	총 자 본 회 전 율		매 출 채 권 회 전 율		재 고 자 산 회 전 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어업	1.08	0.91	22.65	23.99	9.08	6.66
광업	0.76	0.71	7.71	8.07	12.39	10.77
제조업	1.24	1.22	7.34	7.74	7.40	7.27
전기·가스 및 증기업	0.32	0.35	11.91	11.17	20.01	21.52
건설업	0.73	0.92	4.85	4.68	4.64	6.87
도소매·숙박업	2.90	2.86	11.61	12.35	19.28	18.96
운수·창고업	0.87	0.89	11.21	12.49	34.29	31.53
부동산·사업서비스업	0.67	0.82	3.50	4.73	32.26	42.65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0.88	0.74	6.24	6.03	63.02	62.95

〈表-9〉 제조업 업종별 활동성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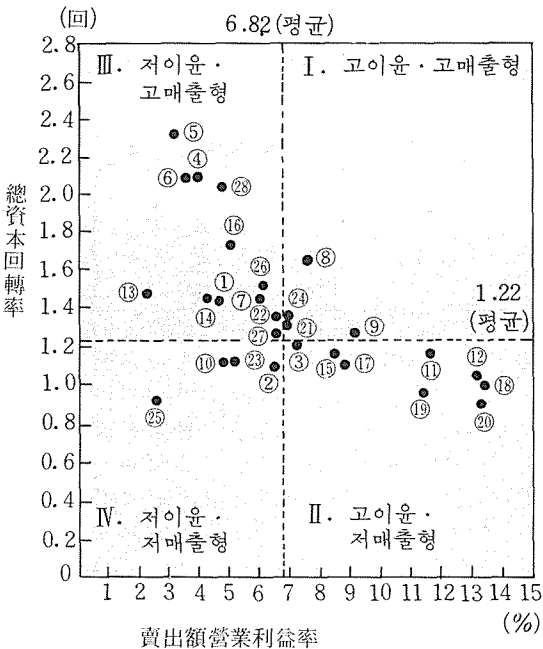
	총 자 본 회 전 율		매 출 채 권 회 전 율		재 고 자 산 회 전 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제조업	1.24	1.22	7.34	7.74	7.40	7.27
飲·食料品	1.39	1.36	7.53	7.93	9.15	9.26
섬유·의복	1.64	1.49	14.99	15.21	6.86	6.51
제재·가구	1.42	1.53	6.55	7.32	7.34	7.52
종이·인쇄	1.18	1.19	5.01	5.02	9.90	10.47
石油·화학	1.35	1.26	6.68	6.73	8.59	8.56
비금속광물	0.90	0.96	5.94	6.46	8.62	9.99
제1차금속	0.95	1.00	8.67	10.06	6.43	6.57
조립금속·기계	1.14	1.15	6.10	6.63	6.82	6.60
수출기업	1.25	1.24	9.79	10.87	7.27	7.04
내수기업	1.23	1.20	6.12	6.30	7.51	7.46
重化學工業	1.13	1.13	6.71	7.22	7.26	7.13
輕工業	1.45	1.37	8.58	8.73	7.63	7.50
대기업	1.12	1.12	6.91	7.46	7.21	7.11
중소기업	1.76	1.64	8.95	8.71	8.00	7.78

기업의 활동성 지표인 총자본회전율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기업의 수익현실 현황을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본의 회전속도가 빨랐던 高利潤·高賣出型 업종에는 가구 및 장치물, 섬유, 비철금속,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 등이 속하고, 둘째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매출활동이 저조했던 高利潤·低賣出型에는 산업용화학물, 고무제품, 도기·자기 및 토기, 유리 및 유리제품, 철강업종 등이 속하며, 셋째 수익성은 낮았으나, 매출활동이 활발했던 低利潤·高賣出型 업종에는 식료품, 의복, 가죽, 신발, 나무 및 콜크제품, 석유정제, 플라스틱제품, 조립금속제품, 정밀기기, 약기, 운동 및 경기용구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익성도 낮고 매출활동도 부진했

던 低利潤, 低賣出型 업종으로는 음료품, 인쇄·출판, 기계, 운수장비업종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활동성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日本보다는 뒤지고 있으나, 臺灣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2〉 수익실현형태로 본 업종유형



- 註：I. 고이윤·고매출형
 ③ 섬유 ⑧ 가구 및 장치물 ⑨ 종이 및 종이 제품 ⑲ 비철금속 ⑳ 전기 및 전자기기
- II. 고이윤·저매출형
 ① 산업용 화합물 ⑫ 기타화학제품 ⑮ 고무 제품 ⑰ 도기, 자기 및 토기 ⑱ 유리 및 유리제품 ⑲ 기타 비금속광물 ⑳ 철강
- III. 저이윤·고매출형
 ① 식료품 ④ 의복 ⑤ 모피, 가죽 및 대용 가죽 ⑥ 신발 ⑦ 나무 및 플라스틱제품 ⑬ 석유정제 ⑭ 기타석유석탄제품 ⑯ 플라스틱 제품 ⑳ 조립금속제품 ㉑ 정밀기기 ㉒ 악기 ㉓ 운동 및 경기용품
- IV. 저이윤·저매출형
 ② 음료품 ⑩ 인쇄·출판 ㉔ 기계 ㉕ 운수 장비

〈表-11〉 제조업 활동성의 국제비교

(단위: 회)

	韓國		美國	日本	台灣
	1987	1988	1988	1987	1987
총자본회전율	1.24	1.22	1.16	1.25	0.96
유형고정자산회전율	2.96	2.90	3.39	4.55	2.05
재고자산회전율	7.40	7.27	7.52	9.38	6.07

V. 재무구조

1. 재무구조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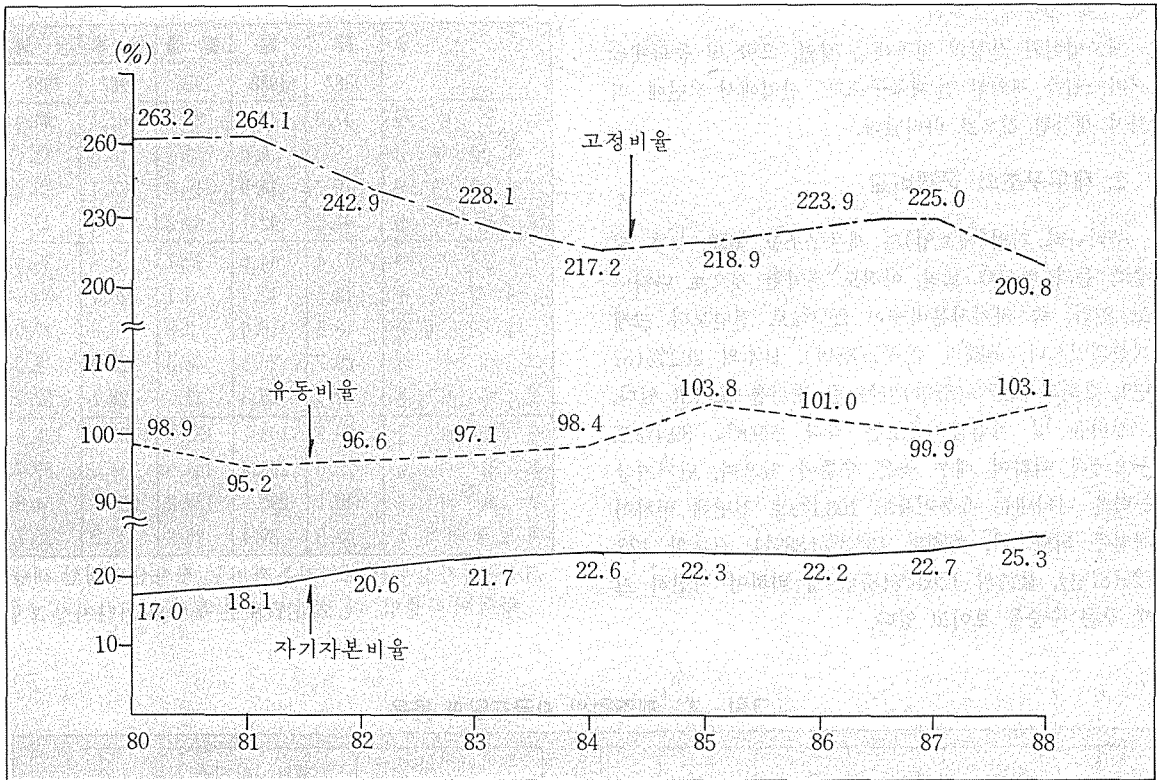
연중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수익성 호조와 활발한 증자에 힘입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25.3%로서 전년의 22.7%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자본의 고정화정도를 나타내는 고정비율도 209.8%로서 전년의 225.0%보다 낮아졌다. 또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103.1%로 전년(99.9%)보다 높아졌다. 업종별 재무

〈表-12〉 제조업 업종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제조업	22.7	25.3	99.9	103.1	225.0	209.8
飲·食料品	18.2	19.1	81.6	81.4	274.2	274.3
섬유·의복	20.4	24.2	99.3	107.4	238.2	213.6
제재·가구	11.7	15.6	98.1	105.1	377.8	273.8
종이·인쇄	19.9	23.4	111.2	113.0	249.6	219.3
石油·화학	28.6	33.2	109.3	124.0	170.7	156.3
비금속광물	26.7	30.2	95.0	100.4	227.8	203.3
제1차 금속	25.2	31.7	102.1	118.6	241.1	195.8
조립금속기	21.0	21.0	99.2	95.3	225.8	241.5
수출기업	24.1	25.9	100.6	102.6	226.9	218.9
내수기업	21.6	24.7	99.4	103.5	223.4	202.6
重化學工業	23.3	25.7	99.4	101.9	226.3	211.5
輕工業	21.5	24.5	100.6	105.3	222.2	206.4
대기업	23.1	26.0	98.6	102.8	231.1	212.5
중소기업	21.1	21.8	104.6	104.5	194.6	195.9

〈그림-3〉 제조업 주요 재무비율 추이



구조 추이를 보면 수익성 호조 및 직접자금조달 증가로 조립금속·기계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가장 크게 개선된 업종은 제1차금속업종으로 자기자본비율이 31.7%로 나타나 전년(25.2%)보다 6.5% 포인트나 개선되었으며 섬유·의복, 제재·가구, 종이·인쇄,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 등의 자기자본비율도 전년보다 각각 3~4%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율은 자기자본의 증가에 따라 飲·食料品 및 조립금속·기계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낮아졌는데, 특히 제재·가구업종이 273.8%로 전년(377.8%)보다 크게 낮아졌다. 제조업을 내수·수출기업으로 나누어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수출기업은 전년의 24.1%에서 25.9%로 다소 높아진 반면 내수기업은 전년의 21.6%에서 24.7%로 크게 높아져 내수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수출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증가가 활발하여 대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3.1%에서 26.0%로 크

게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의 21.1%에서 21.8%

〈表-13〉 산업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어업	18.2	22.9	73.8	77.4	325.9	263.4
광업	35.0	33.2	113.2	104.3	161.8	173.5
제조업	22.7	25.3	99.9	103.1	225.0	209.8
전기·가스 및 증기업	41.2	48.6	49.8	76.9	225.9	191.4
건설업	11.9	15.7	116.3	115.3	298.6	211.5
도소매업	23.0	24.9	104.5	98.2	175.0	175.8
운수·창고업	8.6	9.8	65.2	77.8	853.1	748.3
부동산·사업서비스업	25.7	30.5	85.9	102.1	226.5	181.6
오락 및 문화 예술서비스업	51.5	37.3	152.9	111.1	124.0	183.5

계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년의 21.1%에서 21.8%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제조업의 산업의 경우에는 광업,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재무구조가 산업에서 전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무구조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기업(제조업)의 재무구조를 美國, 日本 및 臺灣 등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기자본비율이 25.3%로 전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美國의 42.0%(88년), 日本의 28.2%(87년), 臺灣의 52.7%(87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정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209.8%, 39.4%로 주요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103.1%로 전년에 비하여 개선은 되었으나, 美國의 152.3%(88년), 日本의 125.7%(87년), 臺灣의 126.6%(87년)에 비하여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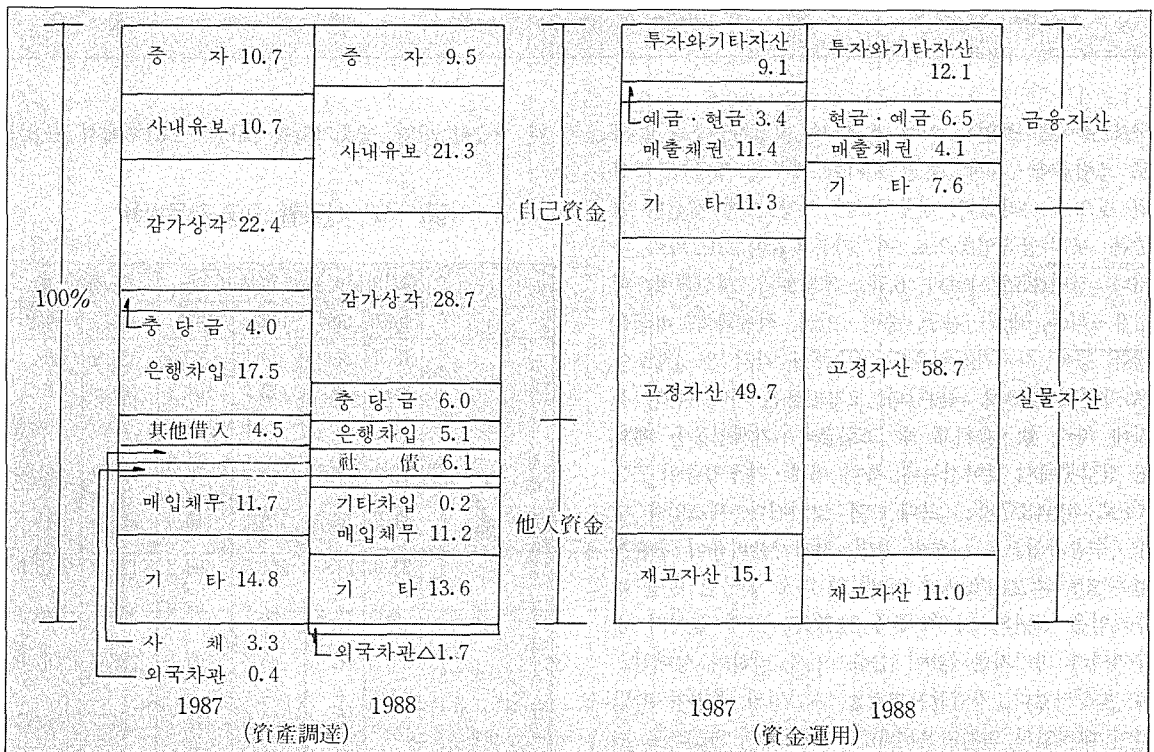
〈表-14〉 제조업 재무구조의 국제비교

(단위: %)

	韓 國		美 國	日 本	台 灣
	1987	1988	1988	1987	1987
유 동 자 산	47.3	46.0	39.2	61.3	44.4
현 금·예 금	5.5	6.0	2.7	16.5	13.7
매 출 채 권	16.7	14.9	15.0	23.4	10.5
고 정 자 산	41.8	42.7	60.8	38.5	47.3
유 동 부 채	47.4	44.6	25.7	58.8	35.0
매 입 채 무	12.3	12.7	8.1	20.1	-
단 기 차 입 금	18.5	16.6	3.8	16.8	17.0
고 정 부 채	29.7	29.3	32.3	23.0	8.5
자 기 자 본	22.7	25.3	42.0	28.2	52.7
유 동 비 율	99.9	103.1	152.3	125.7	126.6
고 정 비 율	225.0	209.8	144.9	136.6	89.7
부 채 비 율	340.1	296.0	138.2	254.6	154.8
차 입 금 의 존 도	42.9	39.4	28.2	35.2	25.1

註: 유동자산부터 자기자본까지는 총자산에 대한 해당 항목의 비율임. 단, 固定資産은 투자와 기타자산 포함

〈그림-4〉 제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



3. 자금의 조달과 운용

연중 제조업의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자기자금 조달 비중이 65.5%를 보여 전년(47.8%) 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주식발행시장이 활황을 보이는데다 시가발행에 의한 증가가 활발하였던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자기자금조달중 증자 및 내부유보에 의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30.8%로 전년(21.4%)보다 크게 높아졌다. 타인자금의 조달비중은 전년의 52.5%에서 34.5%로 낮아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차입비중이 5.1%로 전년(17.5%)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금의 운용면을 살펴보면 활발한 시설투자에 힘입어 건물·기계장치, 건설기계정, 토지 등 실물자산 운용비중이 69.7%로 전년(64.8%)에 비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채권 및 투자와 기타자산 등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35.2% → 30.3%)졌다.

Ⅵ.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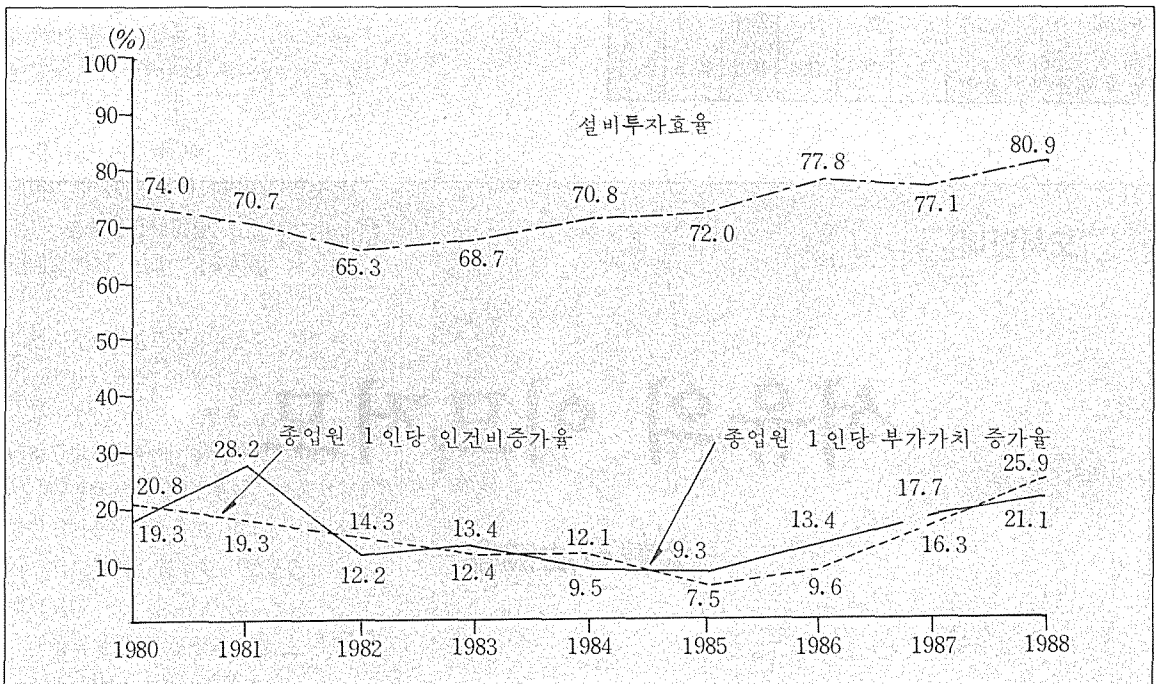
연중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은 수익성 호조와 설비

〈表-15〉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단위: %)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설비투자 효율		종업원1인당 인건비 증가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제조업	17.7	21.1	77.1	80.9	16.3	25.9
· 食 料 品	12.1	15.7	73.6	74.0	15.4	22.3
· 醫 藥 品	21.3	14.6	105.0	96.9	17.2	22.8
· 金 屬 製 品	13.7	39.1	92.9	118.9	14.0	25.4
· 石 油 精 製	9.3	31.2	73.2	84.1	14.3	25.8
· 石 油 精 製	13.0	14.1	80.4	83.7	13.3	18.3
· 石 油 精 製	15.7	31.4	66.1	82.8	18.4	32.6
· 石 油 精 製	28.4	19.8	65.3	62.6	18.6	22.8
· 石 油 精 製	18.2	23.5	71.2	79.4	16.2	29.1
· 石 油 精 製	23.4	19.8	75.5	75.7	18.9	29.4
· 石 油 精 製	13.7	21.6	78.4	85.5	14.5	22.7
· 石 油 精 製	17.3	21.9	68.2	74.6	15.8	27.3
· 石 油 精 製	16.7	18.4	94.8	93.2	16.1	23.3
· 石 油 精 製	17.7	20.6	69.7	74.1	16.4	27.7
· 石 油 精 製	16.3	19.8	114.9	113.7	15.5	20.9

註: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 / (유형고정자산 - 건설기계정)} × 100

〈그림-5〉 제조업 생산성지표의 추이



〈表 - 16〉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 %)

	1984	1985	1986	1987	1988
법인제차감전순이익	10.8	9.4	14.3	13.8	13.6
인 건 비	49.1	48.3	46.7	47.0	48.9
금 용 비 용	19.0	19.8	17.7	16.3	14.4
임 차 료	2.2	2.3	2.2	2.4	2.5
조 세 공 과	1.4	1.4	1.3	1.1	1.2
감 가 상 각 비	17.5	18.8	17.8	19.4	19.4

〈表 - 17〉 산업별 생산성

(단위 : %)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설비투자 효 율		종업원1인당 인 건 비 증 가 율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어 업	7.8	7.5	87.6	82.5	19.5	8.3
광 업	10.8	31.9	100.2	108.5	11.1	25.0
제 조 업	17.7	21.1	77.1	80.9	16.3	25.9
전기·가스 및 증기업	11.1	23.2	23.7	27.7	9.7	10.3
건 설 업	-0.6	10.3	193.2	340.4	-0.7	7.4
도 소 매 · 숙 박 업	12.5	11.7	87.4	81.1	8.4	15.4
운 수 · 창 고 업	11.4	16.2	60.6	68.1	14.2	17.5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2.0	20.5	61.7	95.8	8.1	15.5
오 락 및 문화예술회 서비스업	6.2	28.1	51.2	49.2	17.5	25.6

자산의 효율성 향상 등을 반영하여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이 21.1%로 전년의 17.7%보다 3.4%포인트 높아졌으며, 설비투자효율도 80.9%로 전년(77.1%)보다 개선되었다. 한편 종업원 1인당 인건비증가율은 25.9%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21.1%)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업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특히 제재·가구, 종이·인쇄업종이 30% 이상의 높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섬유·의복, 제1차금속업종 등은 노동생산성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수출기업 보다는 내수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구성추이를 보면 인건비의 구성비가 48.9%로 전년(47.0%)보다 높아진 반면 금융비용의 비중이 14.4%로 전년(16.3%)에 비하여 낮아졌다.

제조업이외 산업의 생산성을 보면 어업 및 도소매·숙박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이 향상되었는데, 특히 2년 연속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감소를 보였던 건설업이 다소 회복되어 10.3%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보였다.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9. 6월호〉

□ 도서안내 □

석유의 이모저모

— 大韓石油協會 —